한국인의 신끼·문끼가 'BTS'를 만들었다

신끼 문끼 새끼꼬기

최준식 지음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을 휩쓸었다. '오징어 게임'은 최근 열린 제74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감독상, 남우주연상 등 6관왕에 오르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언어의 장벽을 뚫고 비영어권 드라마가 이 같은 쾌거를 이룬 것은 이례적이다.

'기생충', '미나리'에 이어 '오징어 게임'까지 한국의 영화, 드라마는 이제 세계가 주목한다. K팝 열풍은 또 어떤가. 방탄소년단(BTS)으로 대변되는 K팝을 비롯해 한국의 문화는 이제 세계인이 주목하는 콘텐츠로 발돋움했다.

한국문화에는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일까.

최준식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교수는 '신끼'(神氣)와 '문끼'(文氣)로 집약한다. 한국문화, 한국인에게는 이 두 기운이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한국문화 표현단'을 만들어 우리 예술문화를 공연 형태로 소개하는 운동을 해왔으며 지난 2013년에는 '한국문화중심'이라는 복합문화공간을 만들어 한국문화 전반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있다. 그동안 '한국문화 오리엔테이션', '한국의 문기', '한국의 신기'와 같은 책을 써온 것에서 보듯 저자는 한국문화에 잠재돼 있는 본질적인 요인들에 천착해왔다.

이번에 최 교수가 펴낸 '신끼 문끼 새끼꼬기'는 한국인이 왜 예능과 놀이에 능한지 파고든다. 사실 한국인들의 음주가무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어떤 일에 미치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한쪽으로 치닫는 성향"이 한국인에게는 있다. 오늘의 시대뿐 아니라 예전부터 있어왔던 일이다. 저자는 이를 '신끼'라고 부른다.

K팝을 비롯해 한국의 문화는 세계인이 주목하는 콘텐츠로 발돋움했다. 사진은 방탄소년단. /연합뉴스

또 하나 한국문화 이면에는 인문학적 자질이 드리워져 있다. 물론 인문학적 역량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이를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인문학적인 힘이 만들어낸 문화유산"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을 만큼 우수성을 인정받는다. 저자는 이 인문학적 힘을 '문끼'라는 기운으로 설명한다.

그러면서 저자는 한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이 두 기운이 때를 만나 새끼 꼬듯이 적절히 꼬여 생긴 현상"과 맞물려 있다. 한국의 경제발전이 이 같은 양상과 유사하다는 논리다.

"한국인들은 문끼를 바탕으로 형성된 공부 문화 위에 '잘살아보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신끼의 기운을 끝까지 몰아붙여 다른 민족이 이루지 못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민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려진 대로 한류의 세계적 흥행 그 중심에는 BTS가 있다. 오늘의 한국 연예 문화는 BTS의 후광효과를 입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자는 BTS 현상도 신끼와 문끼 원리로 설명한다.

BTS 현상 이면에는 수천 년 응결된 역사와 문화가 있다. 즉 신끼와 문끼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BTS의 라스베이거스 공연을 보고는 아미를 새롭게 발견한다. 그들의 말과 표정, 메시지는 새끼꼬기의 세 가닥 가운데 한 가닥을 이룬다는 사실과 마주한다. 즉 "신끼와 문끼는 제3의 가닥인 아미를 만나야 완성된다"는 깨달음에 도달한 것이다. 이 깨달음은 결국 다음의 자부심으로 전이된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은 대중문화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상수(常數)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은 세계 대중문화계에서 변수나 지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두리가 중심이 된 것입니다."

〈소나무·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

'아름다운 것'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나는 버틴다

키코게임즈: 호모사피엔스의 취미와 광기

심민아 지음

게임을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입사하고자 하는 회사가 있다. 바로 키코게임즈. 그러나 주인공 유라는 게임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한 채 입사를 했다. 유라가 이 회사에 들어가게 된 것은 졸업 후 번번히 취업에 실패를 하면서 생활하기 어려워지면서다. 우연한 기회에 찾아온 취업, 유라는 게임은 모르지만 커리어라도 쌓아 보려고 회사에 들어간다.

2014년 세계의 문학 신인상으로 등단한 심민아 작가의 장편 '키코게임즈: 호모사피엔스의 취미와 광기'는 매력적인 캐릭터와 위트 있는 문장이 읽는 맛을 더한다.

소설의 배경이 된 것은 한국 게임산업의 중심지인 판교. 유라는 매일 아침 판교행 만원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한다. 게임에 대해 거의 무지하지만 오로지 '아름다운 것'을 만들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러나 막상 회사에 들어서면, 다시 말해 '호모사피엔스의 취미와 광기'가 집약된 현실은 멀미를 유발할 만큼 어지럽고 생소하다.

유라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려 노력한다. 회사에서 불리는 그의 직함은 게임디자이너, 게임기획자, 게임 멘토다.

유라의 눈에 비친 풍경은 그야말로 낯설고 이색적이다. 밤새 게임을 한 탓에 부스스한 모습으로 출근하는 개발자들을 비롯해 우주를 구현한 뒤 그것이 공격받고 부서지는 움직임을 사실적으로 구축해내는 디자이너들에 이르기까지 전혀 평범하지 않는 모습들이다.

점차 회사에 적응을 하기 시작한 유라는 다양한 게임을 직접 해본다. 그녀의 기억 속에는 희미하나나 어린 시절 오락실에서 했던 '펌프 잇 업'이라는 게임이 있다. 자신을 놀리고 왕따시키는 아이들을 피해 방과 후 즐겼던 그 게임을 기억한다. 유라는 메콩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어린시절 게임의 기억은 온전히 아름답지만은 않다. 어른이 된 이후 떠올렸던 '프린세스 메이커'는 여자아이에게 어른 남성의 성적 욕망을 투영했던 게임이기도 했다. 그 가운데 가슴을 2센티미터나 자라게 해준다는 마법의 약 '풍유환'은 어린 유라의 눈에도 모멸감이 느껴졌었다.

유라는 진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오래된 공연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과연 유라는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것을 해낼 수 있을까. 키코게임즈에서의 생활을 무사히 견뎌낼 수 있을까.

한편 박서련 소설가는 추천사에서 "누가 뭐래도 나는 이 소설의 주인공이 만든 게임을 꼭 플레이해 보고 싶다. 적을 쓰러뜨리기 위해 강해져야 하고, 강해지기 위해 적을 쓰러뜨려야만 하는 자본주의적 반복 구조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인공의 게임 철학에 작은 마음을 보태고 싶다"고 말한다. 〈민음사·1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우주미션 이야기=인공위성 만드는 물리학자 황정아 박사의 저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한국형 달 궤도선 다누리가 연이어 발사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는 '우주 주권'을 가진 나라가 됐다. 책은 실제 우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제작 과정과 기술을 설명한다. 우주개발 초창기부터 현장에서 헌신한 황 박사의 경험과 지식을 재밌게 접할 수 있다. 인공위성에 대한 소양을 높이고 싶다면, 우주를 꿈꾸는 이들이라면 필독해야 할 '우주 개발의 정석'. 〈블루토·1만7000원〉

▲나는 오래된 거리처럼 너를 사랑하고=노란 타워크레인에서 추락하는 그림자 사이에', '진실을 밝히는 노래를 함께 불러줘 고마워'… 감각적인 은유와 선명한 이미지로 현실 문제를 철학적 사유로 풀어낸 진은영 시인의 10년 만의 신작 시집. 책 속 42편의 강렬하고 감각적인 시가 돋보인다. 진은영 시인의 시에는 하나의 사건을 둘러싼 몇 겹의 이야기가 품어져 있다. 〈파편-파란·1만3000원〉

▲키메라(전3권)='파편'으로 재능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던지는 로맨스를 선보였던 홍수연 작가가 차기작 '키메라'로 돌아왔다. 키메라는 유전적으로 두개 이상의 세포들이 혼합된 식물을 의미한다. 그녀는 3편으로 제작된 '키메라'를 통해 생명과학을 이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계산하는 인간의 욕망을 담았다. 서로를 간절히 원하지만 운명이 펼쳐 놓은 시련과 맞닥뜨리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인간의 환경과 재능과 접목시켜 매혹적으로 풀어낸다. 〈파란·1만3000원〉

▲우리는 부탄에 삽니다=행복한 나라'로 알려진 히말라야의 작은 나라 부탄에 각각 다른 이유로 와서 살게 된 한국 여자들의 일상이 담겨있다. 부탄인 남자와 결혼해 사는 이연지의 부탄 유일 한국식당 운영기와 국제 NGO활동을 하던 중 봉사단원 활동을 계기로 가족들과 부탄에 살게 된 70년대생 고은경, 남아시아 지역전문가 90년대생 김휘래까지 세 여성의 현지 경험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도서출판 공명 1만8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읽다 보면 공룡 박사=공룡은 얼마나 똑똑했을까? 공룡도 아팠을까? 공룡은 얼마나 먹었을까? 공룡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책은 시내버스 3대만한 공룡, 멜론 크기의 알 등 공룡에 대한 묘사와 함께 티라노사우루스와 닭이 생물학적으로 가족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까지 최신 학설을 소개한다. 〈창비·1만 4000원〉

▲우리 반 목소리 작은 애=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소담이에게 사촌 오빠는 "학교에서 쓸데없는 말을 해서는 안돼"라고 말한다. 미술 수업 시간, 소담이는 짝꿍의 질문에 대답을 하다 선생님께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말을 해선 안돼"라며 혼이 난다. 고민이 시작되자 소담이의 목소리는 점차 작아진다. 과연 학교에서 하는 모든 말은 쓸데없는 말일까? 〈풀빛·1만 2000원〉

▲무엇이든 고쳐드립니다! 랑이 아저씨=느리고 서투른 주인공 승용이, 그래서일까 친구 사이에 끼지 못해 늘 혼자서 논다. 승용이는 혼자 집에서 게임을 하려던 중 텔레비전이 고장나 '무엇이든 고친다' 명함 속 수리 기사 아저씨에게 연락한다. 수리기사로 나타난 아저씨는 다름 아닌 호랑이! 랑이 아저씨는 물건도 사람도 속을 들여다봐야 어디가 아픈지 안다며 말을 건다. 〈크레용 하우스·1만3000원〉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